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安保環境의

變化에

따른

民間軍事企業의

發展

2009

申東赫

碩士學位論文

安保環境의 變化에 따른 民間軍事企業의 發展

〈民間軍事企業 適用方案을 中心으로〉

2009年

漢城大學校經營大學院

經營學科

國防經營專攻

申 東 赫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善 浩

안보環境의 變化에 따른 民間軍事企業의 發展

〈民間軍事企業 適用方案을 中心으로〉

Development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roug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2008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經 營 大 學 院

經 營 學 科

國 防 經 營 專 攻

申 東 赫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善 浩

安保環境의 變化에 따른 民間軍事企業의 發展

〈民間軍事企業 適用方案을 中心으로〉

Development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roug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經 營 大 學 院

經 營 學 科

國 防 經 營 專 攻

申 東 赫

申東赫의 經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1節	問題提起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 設計 및 方法	4
	1. 研究設計	4
	2. 研究方法	5
第 2 章	理論的 背景 및 考 察	6
第1節	概念定義	6
	1. 用 兵	6
	2. 民間軍事企業	8
	3. 防衛産業體의 軍産複合體化	10
第2節	民間軍事企業 登場背景 및 考察	13
	1. 安保環境 및 戰爭樣相의 變化	13
	2. 近代 및 現代 民間軍事企業의 登場	16
	3. 民間軍事企業의 特徵	20
第 3 章	民間軍事企業의 分類 및 事例研 究	23
第1節	民間軍事企業의 分類	23
	1. 軍事力 提供企業	24
	2. 軍事 諮問企業	24
	3. 軍事 支援企業	24

第2節	民間軍事企業 事例研究	25
	1. 海外 主要 民間軍事企業	25
	2. 海外 其他 民間軍事企業	33
	3. 國內 民間軍事企業	40
第 4 章	民間軍事企業의 擴散과 評價, 適用方案	44
第1節	冷戰終熄 後 民間軍事企業의 擴散背景	44
第2節	民間軍事企業에 對한 評價	48
	1. 民間軍事企業에 對한 肯定的인 面	48
	2. 民間軍事企業에 對한 否定的인 面	49
第3節	民間軍事企業의 適用方案	52
	1. 民間軍事企業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点	52
	2. 民間軍事企業에 適用 可能的 業務領域	54
	3. 民間軍事企業 育成을 위해 發展시킬 事項	55
第 5 章	結 論	57
參考文獻		59
ABSTRACT		62

表 目 次

〈표 1〉	용병의 특징	8
〈표 2〉	과거 용병과 현대 민간군사기업의 차이점	22
〈표 3〉	(주) 승진 MR&D의 주요 사업 분야	43
〈표 4〉	민간군사기업과 정규군의 비교	47
〈표 5〉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출신자 취업률 현황	49
〈표 6〉	민간군사기업에 적용 가능한 업무영역	5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군을 주축으로 한 33개국 68만의 다국적군(미군 43만)은 45일 만에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했다. 이로 부터 12년이 지난 2003년 3월 20일, 이번에도 역시 미군을 주축으로 미·영 연합군(미군 25만5천, 영군 4만5천)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이라크전을 개시했고, 개전 26일 만인 2003년 4월14일, 미군이 이라크군 최후의 보루이자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크리트 중심부로 진입함으로써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된다. 1991년의 1차 걸프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병력으로 절반 조금 넘는 기간에 승리를 결정지은 것이다. 비록 1차 걸프전에 비해 이라크군이 약화¹⁾되기는 했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방장관 취임 후 미군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럼스펠드의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라고 알려진 미군의 군사혁신 결과 때문이었다.

소위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과의 핵심이었던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 국방장관은 재래식 무기와 거대 군 병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냉전 형 미군 구조를 최첨단 무기 체계가 강화된 소규모의 신속 대응군 개념의 군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럼스펠드의 이러한 주장은 곧 군 내부의 반발과 기존 군산복합체의 맹렬한 반대를 야기하였다. 군사혁신에 의한 미군 감축과 재래식 무기 생산의 감축이 당연한 불만의 이유였다. 그러나 9.11 테러라는 극적인 사건은 군사혁신파에게는 미군 체질개선의 기회를, 반대파에게는 경제적 운택함을 제공해주게 된다. 특히 럼스펠드의 국방

1) 걸프전 직전의 이라크 군사력은 총 병력 100만에 전차 5,500대, 전투기 500대, 수백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최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10만 명이 수도 바그다드에 배치되어 당시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 당시 이라크군은 총 병력 45만 명에 전차 수백 대, 전투기 200대 이하라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축은 다양한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었다. 이중 민간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중의 하나인 아웃소싱(Outsourcing)²⁾은 군의 역량을 전투부대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비전투기능은 가능한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럼스펠드는 국방 아웃소싱론에 관한 철저한 신봉자로서 “군인은 전투에만 몰두해야 한다(Soldiers must focus on fighting.)”란 지론 아래 “이빨 대 꼬리 비율(The teeth-to-tail ratio)”에서 전투능력을 뜻하는 이빨은 놔두고 지원인력을 뜻하는 꼬리를 잘라낸 미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을 적극 추진해 왔다.³⁾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의 아웃소싱 범위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는 이미 기지 내 상업 활동의 25%, 창정비의 35%, 재무회계 기능의 10%, 육군비행교육의 70%, 초과 자산 매각의 45%를 민간 아웃소싱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미군은 더 이상 민간군사기업의 도움 없이는 국지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조차 원활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 민간군사기업들은 군수지원, 기지운영, 전후복구, 교육·훈련 지원, 군사적 자문 및 직접 교전행위까지 다양한 영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해 국제분쟁에서 신속한 대응과 경비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능력 활용을 통하여 미국이 얻는 경제적 기대 이익은 1998년과 2003년 회계기간 중에 약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⁴⁾

2) 원래는 경제용어인데,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외부 전산 전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3)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인 2003년 2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에릭 신세키 육군참모총장을 전격 해임한다. 전쟁 전 신세키 총장은 “전쟁과 전쟁 이후 이라크를 안정시키는 데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럼스펠드는 “현대전을 모르는 소리”라며 이를 비판했다. 럼스펠드는 부시행정부에서 국방장관에 취임하자 ‘지디 시얼리’, ‘제너럴인스트루먼트’ 등의 회사에서 최고경영자를 거치면서 터득했던 기업경영의 한 방식인 아웃소싱 이론을 국방개혁에 적극 활용했다.

4) 이상진,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관리 혁신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보기술과 국방관리,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소련의 붕괴라는 극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안보 사영화(私營化)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냉전이후, 이제 항구적인 세계평화가 찾아오리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과 분쟁의 이유는 이념과 종교적 갈등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해소를 포함해 점점 더 복잡한 이유로 채워져 가고 있는 반면, 소련의 와해로 거대했던 대결구도의 한 축이 무너지자, 전 지구적인 상비전력 감축과 군사비지출 격감의 열풍이 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양상들은 국가 간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軍事: Military Affairs)상황에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한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제공해 주었다. 배리 부잔(Barry Buzan)⁵⁾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영역이 다원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 활동의 주체가 더 이상 국가 국민군의 몫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의 과도한 활용은 더 이상 군사적 무력행위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을 반드시 기대할 수 없고, 국제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등 민간군사기업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민간군사 시장의 성장은 이제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민간군사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보분야의 사영화(私營化)에 대한 연구 및 조사는 아직 까지 극히 미흡한 편이다. 몇몇 단편적인 기사와 몇 편 안되는 학위논문,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피터 W. 싱어(Peter W. Singer)⁶⁾의 「Corporate Warriors」와 켄 실버스타

2001.

5) 런던 경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교수 및 코펜하겐 대학의 명예교수인 Barry Buzan은 국제안보, 국제관계이론 등에서 저명한 연구가로 알려져 있다.

6) 브루킹스연구소 대외 정책 연구 프로그램의 국가 안보 연구원이자 미국의 이슬람 세계 정책에 관한 브루킹스 연구소 프로젝트의 책임자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국방 장관 실 발칸 지역 특별 조사단 및 비정부 기구인 국제평화아카데미(IPA) 등에서 일했다. 현재, 중심 연구 분야인 민간군사산업 및 소년병사 문제의 세계적인 전문가 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평화유지활

인(Ken Silverstein)⁷⁾의 「Private Warrior」라는 두 권의 책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여건에 부합되는 민간군사기업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 2 절.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 설계

용병, 민간군사기업, 군산복합체 등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 주제에 대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활동 중인 몇몇 유력한 민간군사기업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제 2장의 내용은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이론적 배경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과거 단순 용병집단에서 현재의 민간군사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과정과 차이를 통해 본 논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현존하는 민간군사기업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각 민간군사기업들의 실제 활동내용을 근거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종군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미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위치를 가늠해 보았다.

제 4장에서는 민간군사기업 활동이 활발한 이유와 향후 민간군사산업의 추이를 예측해 보았다. 특히 9.11테러 이후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 까지 민간군사기업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대한 이유를

동, 국가안보, 테러리즘 등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 했다.

7) 미국 워싱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좌파 저널리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8년부터 『AP 통신』의 브라질 통신원을 지냈으며, 1993년부터 워싱턴에서 대안적 정치 뉴스레터인 『반격(Counter punch)』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도 정치·군사문제에 관한 왕성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민간군사기업 활동이 빚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민간군사기업 모델 및 업무영역,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 활용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법과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다. 특히 민간군사기업에 관련된 단행본 및 일간지, 관련 군사 전문서적 및 월간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 자료, 전문가들의 연구논문과 관련 연구기관 자료, 그리고 관련사항을 취재한 취재기자⁸⁾와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8)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직접 종군한 군사 전문지 기자와 인터뷰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고찰

제 1 절. 개념정의

1. 용 병

용병[傭兵, mercenary]은 비록 충성심이 부족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원이 적은 단점이 있으나, 자국민의 보호 또는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흔히 사용해 오던 제도이다.⁹⁾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에서 고용한 용병, 고대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 용병군, 중국 송대(宋代)의 용병부대, 중세 말기 이탈리아 등의 유럽 신흥도시나 절대군주가 고용한 용병, 유럽 역사상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스위스 용병단,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 워싱턴 장군을 괴롭혔던 독일 용병 등이 유명하다. 초기 봉건주의적인 병제(兵制)에서의 용병은 보수보다는 주종관계에 바탕을 둔 봉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12~13세기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금전에 의한 계약제도가 성행하게 되고, 하급귀족이나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직업적인 용병의 집단까지 생겨났다. 그리하여 15~17세기에는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그 군대의 대부분을 용병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이후 30년 전쟁(1618~1648)을 계기로 이 용병군을 상비군으로 개편하는 계기¹⁰⁾가 되는데, 당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는 국가 상비군이라는 개념자체가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연루되면서 용병운용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

9) 두산 대백과 사전

10) 30년 전쟁의 주요무대는 독일 도시와 공국이었으며 이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 참가한 많은 군인들이 용병이라는 점은 30년 전쟁의 한 특징이다. 이들 용병 가운데 다수는 급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급품 충당을 위해 쌍방 간의 군대는 모두 진군 중에 약탈을 일삼아 도시와 마을 및 농장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열강들이 유혈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독일의 베스트팔렌에서 회동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용병들에 의한 약탈, 방화, 살육 등으로 국토는 황폐하였고, 위대한 천문학자 케플러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굶어 죽거나 역병에 걸려 죽은 것은 케플러 뿐만 아니었다. 당시 1천 6백만 독일 인구가 6백만 명으로 줄었고, 국토의 4/5가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다. 결국 절대 군주제가 성립되면서부터는 용병군이 국왕 직속의 상비군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용병제도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실시된 징병제도에 의해서 국가 상비군이 생겨나게 되자 그들과 교체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용병은 충성심이나 자질상의 문제 외에도 금전에 의해서 고용되는, 성격상 급료나 기타의 계약조건에 따라 아군이나 적군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바꾸고, 주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국의 군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거나 협동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곤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병 가운데에서도 용기가 뛰어나고,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용병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특히 프랑스혁명 당시 그들이 루이 16세의 호위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이 알려지고부터는 많은 국가에서 궁전 수비에 그들을 고용하였다. 바티칸 교황청에서 최근까지 위병으로 고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용병이 그 예이다.

현재 용병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것으로는 교황청의 위병 외에 프랑스의 외인부대(外人部隊)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외인부대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용병과 같지만 외인부대는 주로 제국주의의 여러 나라가 식민지의 치안유지·폭동 진압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보조부대(補助部隊)¹¹⁾라는 점에서 용병과 구별된다.

그러나 월남전 이후 세계정세의 급변속에서 많은 월남전이나 로디지아¹²⁾ 출신의 제대 군인들이 용병시장에 풀렸고, 이들은 특히 아프리카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Soldier of Fortune』이라는 용병 전문잡지까지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민간군사기업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기본 하위

11) 프랑스 외인부대는 1831년 프랑스국왕 루이 필립 1세가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반란을 진압을 위해 5개 대대 규모의 용병(傭兵)을 창설한데서 시작되었다.

12) 정식명칭은 짐바브웨공화국(Republic of Zimbabwe)이다. 동쪽으로 모잠비크, 남쪽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쪽으로 잠비아, 서쪽으로는 보츠와나와 국경을 접한다. 로디지아-니아살랜드 연방(Federation of Rhodesia and Nyasaland) 구성체 중 니아살랜드와 북(北)로디지아는 1964년에 각각 말라위와 잠비아로 독립하였으나 남로디지아는 소수의 영국계 백인이 다수의 아프리카 흑인을 지배하고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을 취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며, 1980년의 총선을 치른 후 국제승인을 받아 정식 독립을 맞았다. - 두산 대백과

개념요소 중의 하나가 된 것도 사실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대외정책연구 프로그램의 국가안보 연구원이자 『Corporate Warriors』의 저자인 피터 W. 싱어(Peter W. Singer)는 오늘날의 용병이 다른 국가상비 전투원 및 군사조직과 구별되는 여섯 가지 특징에 대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용병의 특징

구 분	내 용
외국인	용병은 자신이 싸우는 나라의 시민이나 주민이 아니다.
독립성	용병은 한 나라의 국가 상비군에(장기간)속하지 않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피고용인의 계약상의 의무에만 구속된다.
동 기	용병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적 보수를 위해 전투를 수행 한다.
채 용	용병은 사법 당국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채용된다.
조 직	용병 부대는 개별 병사들이 임시로 모인 조직이다.
업 무	자신이 속한 부대 이외의 상위 조직이 없는 용병은 단일고객을 위한 전투 업무에만 집중한다.

2. 민간군사기업

민간군사기업(民間軍事企業, 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체이다. 또한 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군사훈련, 전문기술 등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법인체이다. 즉, 전술적인

부문만이 아니라 군대가 하는 모든 일이 사영화(私營化)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이다.¹³⁾

이 기업들이 담당하는 이러한 기능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무력사용권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것들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민간 군사기업은 과거에 보통 정부의 공적 책임에 배타적으로 속했던 광범위한 군사 및 안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私)기업 집단을 총칭한다.

이들은 냉전이 끝나고 분쟁이 보다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인 돈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막대한 자원에 대한 채굴권과 같은 권리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III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날의 대표적인 민간 군사기업으로는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다인코프(Dyncorp),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ellog, Brown & Root, 또는 KBR), 블랙워터(Black Water) 등이 있으며, 기존의 군수업체들이 무기를 중심으로 군수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주력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이들 민간 군사기업들은 전투행위에 관한 군사용역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보기에 민간 군사 기업의 활동 역시 하나의 회사 법인으로 생각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남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속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냉전 종식과 변화된 전쟁양상으로 인해 민간군사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국가이며, 이들 국가들은 민간 군사기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13) 피터 W. 싱어, 유강은 옮김, 『전쟁대행주식회사』 (서울: 지식의 풍경, 2005), p17

와 함께 민간 군사기업의 업무 내용에 있어서, 이들의 업무가 물자 수송등과 같은 단순한 전투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전투의 수행과 관련한 일들 역시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가 되는가의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 방위산업체의 군산복합체화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일컬어지던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 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산업의 일부도 이에 포함된다. 방위산업의 특색으로는, ① 제품의 가격보다도 성능이 중요시되고 ② 방위가 목적이므로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방위목적에 부합되면 수요가 있고 ③ 제품은 전부가 소모품임으로 재생산 기능에 환류되는 일이 없고 ④ 최신기술이 투입되며 기술진보가 빠르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방위산업체는 군이 요구하는 사양에만 맞추어 무기체계를 개발·생산 하였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특히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군과의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정책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존재가 된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군대가 기업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게 병기를, 정부에게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시장을 개척해 해외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미국의 정부·군부·기업은 묘한 관계로 얽혀 있어서,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군수업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 관계도 계속되어, 군에서 퇴역 후 일 자리를 창출하는 요긴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¹⁴⁾ 바로 군산 복합체의 출현이다. 다시 말해 군산복합체는 군부(軍部)와 방위산업체 사이

14) 실제로 미국 Lockheed Martin의 경우 각 사업별 부회장은 대부분 군 장성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의 블록으로,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라고도 한다.¹⁵⁾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산복합체는 일반적으로 군대와 무기제작 및 정부에 대한 판매로 이윤을 획득하는 생산업자들 사이의 정치적 제휴로써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를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전 종결로 인한 군비지출 감소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한 군산복합체의 노력은 1976년 지미 카터(Jimmy Carter)¹⁶⁾ 대통령의 당선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Ronald Reagan)¹⁷⁾ 대통령 시절, 미국의 군수산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대 호황을 맞는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난립했던 군산복합체들은 또다시 합병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혁신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이 미군의 무기체계에 접목되면서 소위 '신(新) 군산복합체'가 출현하게 된다. 2000년 11월,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고급두뇌집단들이 미국 외교·군사정책을 주도해나가면서 군산복합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¹⁸⁾ 현재 전직 관료와 상위 미국 방위산업체의 고문 및 주주들이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에서 활약¹⁹⁾하

15) 두산 대백과 사전

16) 민주당 출신 미국 제 39 대 대통령(1977년 ~ 1981년)이다.

17) 1980년에는 지명되어 민주당의 J.카터를 누르고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강하고 풍족한 미국'을 구호로 내걸고, 보수적이고 강경한 국내외정책을 펼친바 있다.

18) 이를 소위 "The Military-Industrial-Think Tank complex"라 칭하기도 한다.

발체 : <http://www.americanpresidents.org>

19)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스티븐 해드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 전 UN 대표부 미국 대사 등이 그들이다.

고 있으며, 41년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산복합체의 로비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이라크·북한 등 제3세계 반미(反美) 국가의 대량과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체 역시 계속 육성하고 있다. 이렇듯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산복합체이다. 그러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밀착 또는 협력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민간군사기업은 그 활동영역이 단순 무기체계 생산이 아닌 폭넓은 전투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군산복합체와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민간군사용역회사가 군산복합체에 합병되거나, 군산복합체의 자회사로써 민간군사용역회사가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역시 둘 사이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마케팅과 하위 전문분야 확보를 위해서이다.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력이 단단해질수록 복합적인 안보 상황에 필요한 더욱 광범위한 군사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또 이미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안정된 사업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대 군수기업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군산업계의 합병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기존 군수산업체들은 국방정책에 따라 첨단무기체계 쪽으로 집중하거나 지상군 감축과 함께 일어나는 군 용역 민영화 대열에 빠르게 적응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수업체들에게 민간군사기업의 전문성은 민간군사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첨병이 될 수 있다. 또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군수산업체 역시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군 내부에서 첨단무기를 운용하고,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필요로 한다. 현재 민간군사기업은 이러한 경향 속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빠르게 군산복합체화 되고 있다.²⁰⁾

종합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민간군사기업의 활동과 기존 군수산업체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수산업이 주로 군사관련 재화(무기체계, 기계, 장비, 물자 등)의 제공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민간군사기업은 재화 보다는 군사용역(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은 직접적 교전행위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민간군사기업은 교전행위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둘째, 수요자의 대상에 있어서 군수산업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간군사기업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인도적 지원단체²¹⁾, 언론기업, NGO, 심지어 용역비 부담이 가능한 개인까지 매우 다양하다.

셋째, 군수산업의 최종수요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사력 건설방향과 산업정책 등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각종 육성 및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의 산업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국가차원의 육성정책도 없고 규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민간군사기업 등장배경 및 고찰

1.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

가. 냉전의 종식

지난 20세기의 국제정치는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Cold War)

20) 대표적인 미국의 군수업체인 Lockheed Martin은 예하 민간군사기업들을 통해 미군 훈련시장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 피터 W. 싱어, 전게서, p148

21)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 적십자, 국경없는 의사회, CARE USA(미국의 빈민국 지원 NGO) 등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활동과정에서 각종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2004년 테러위험으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와 CARE USA 등은 이라크에서 철수한 바 있다. 많은 국제 인도적 단체들은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위기하에서 국제적 지원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민간군사기업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도 발생하는 등 비군사적이라는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김광우,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2005

이라는 이념적 대립의 중첩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다. 동시에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국제정치의 변화에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들을 수반하면서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20세기 국제정치 질서를 형성하였다. 냉전이 국제정치에 미친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지정학적 경쟁논리와 이익의 개념보다는 이념에 기초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확산 및 공고화가 바로 그것이다. 반면, 긍정적 요인은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지정학적 경쟁논리를 희석시키고, 국가 간 협력과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을 습관화·제도화하고자 하는 국제정치의 발전이 그것이다. 특히, 1989년 냉전종식을 계기로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은 보다 확산,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²²⁾ 21세기 들어와 다자주의적 행위양식과 관련된 일련의 상호작용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영향력이 보다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목격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존의 안보개념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

20세기 후반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지역적 다양성을 보이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은 국가안보, 국제안보, 그리고 지구안보 패러다임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안보 패러다임간의 상호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시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들은 안보가 사영화(私營化) 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다. 즉, 냉전의 종식은 민간군사기업이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인 것이다.

나. 현대전 양상의 변화

아울러 급속하게 변하는 21세기 전쟁양상의 변화도 국가가 민간군사기업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양상

22) 우리나라의 경우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가장 좋은 예이다.

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장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보, 통신, 전자, 컴퓨터 기술 발전으로 지금까지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전장영역이 확장되고 실전에서 역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²³⁾

둘째로는 화력기능에서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특히 감시 및 타격 무기체계가 첨단화됨에 따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인기나 아군작전부대를 활용해 원하는 적 병력에 대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졌으며, 표적정보는 자동화 C4I 체계²⁴⁾에 의해 실시간 전파되어 토마호크등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타격이 일반화됨으로써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력전투가 전개되는 전장으로 발전했다. 즉, 화력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어 화력의 역할이 단순히 기동을 지원하고 적의 기동을 방해 및 저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장사정화, 정밀성증가 및 살상위력의 증대와 적과 거리를 둔 비접적(非接敵) 상태 하에서 전장감시 및 C4I체계가 결합되어 정밀타격 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공간에서 GPS(위성항법장치), INS(관성항법장치)의 정밀조준 및 유도장치가 적용된 타격체계(순항미사일등)가 C4I체계와 결합되어 장거리 정밀 화력전 능력을 정보기술과 연계해 통합정밀 화력전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정보 및 작전분야로써 네트워크화된 전쟁기능 발전을 들 수 있다. 고해상도 첩보위성과 고고도/중고도 무인기 등에 의해 감시능력의 발전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및 공중수송능력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적 중심지역 내에 위치한 다수의 표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 동시타격이 가능해졌고, 다차원 공간 내 (적 전투기, 기계화 부대 등)의 여러 위치에서 다수의 결정적인 목표에

23) 오사마 빈라덴 추종세력으로 추정되는 일부 세력에 의한 NSA, CIA, 미 국방성에 대한 해킹사태 급증(2003년 의회 보고서), 전장에서 위성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고도/고고도 무인기(UAV)의 정찰목적/전투에 사용 등.

24)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5대 요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로마자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 두산 대백과 사전

전투력 효과의 동시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정한 전선을 형성하는 기존의 선형 전투양상과는 달리 전자 전기의 지원을 받는 공격헬기, 수송헬기 등에 의해 병력을 적 후방에 침투시킬 수 있고, 따라서 비선형전 및 전투력 분산상태의 분권화된 작전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전부대의 활용증대를 들 수 있다. 현대전의 비선형전투 환경과 다양한 정보획득 문제, 그리고 적 전략무기의 위협에 대비한 적시 타격력은 현대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따라서 적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특수전 전력은 정규전을 지원하는 역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정보전 및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이들 특수부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²⁵⁾ 또한 적 후방 및 점령지역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고 저장도 분쟁지역에서 MOOTW작전²⁶⁾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군은 육군의 그린베레, 레인저, 델타부대 등과 해군의 SEAL등 다양한 특수전 전력을 활용해 목표타격 및 표적 획득, 첩보수집, 심리전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 명시된 내용들은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더군다나 앞서 밝혔듯이 냉전이후 대폭 축소된 군비상황 하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형태의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 뒤따랐고, 그동안 존재가 당연시 되어왔던 많은 군 내부의 비전투조직²⁷⁾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민간군사기업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그들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25) 미군의 경우 10개의 연방사단 중 3개가 특수부대이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 등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다.

- 미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defenselink.mil>)

26) 전쟁 이외의 군사 활동(Military Operation War 또는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 MOOTW). 전쟁과 구분되는 분쟁 혹은 평시에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반 활동.

27) 교육훈련, 수송, 병참, 공병, 의료지원 등

2. 근대 및 현대 민간군사기업의 등장

가. 동인도 회사(Eastern Indian Companies)

전쟁에 용병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대 전쟁에서 조차 흔한 일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히틀러의 제3제국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거의 모든 제국은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 부대를 전쟁에 이용했다.²⁸⁾ 사실 국가의 무력 독점은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극히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비(非)국가 행위자의 폭력이 국제무대에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매우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민간군사조직은 특히 체제 이행기에 번성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약화되었고, 민간시장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흔히 초국적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된 행위자였다. 필자는 초기 민간군사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17세기 초에 등장했던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들고자 한다.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국가에게서 인도양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받았으며, 마찬가지로 1599년에 설립된 영국동인도 회사도 동일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본국의 관리 하에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식민지개척에 있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있었다.²⁹⁾ 이 회사들은 인도양의 무역을 지배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국의 군대와 영토를 압도하는 규모의 군대와 세력권을 관리하였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경우 이미 유럽과 식민지 각지에서 선발한 용병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당시 영국군 보

28)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점령지 유럽은 물론 아시아계 병사들로 구성된 다양한 용병부대를 SS산하 전투조직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 이대영, 『알기 쉬운 2차 대전사』 (호비스트, 1998)

29) 1751년에 발간된 『백과사전(Universal Dictionary)』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략 … 이 회사는 아무 때나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전쟁과 평화를 실행에 옮기고, 점령지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며 … 후략’

다 훨씬 큰 규모였다. 네덜란드 또한 처음에는 소규모로 출발했지만 곧 140척의 함대와 25,000명의 상비군을 거느린 전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돈벌이에 큰 도움이 되는 군사 활동은 동인도회사들의 본질적인 업무 중 하나였다. 이들의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미개척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들은 서로 간에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³⁰⁾ 그런데 이 동인도회사들의 전투행위는 그들 국내경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³¹⁾

그러나 결국 정치 환경이 바뀔에 따라 동인도회사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과 뒤이어 벌어진 나폴레옹 전쟁(1789 ~ 1815)은 적어도 이후 150년 동안 전쟁에서 더 이상 용병이 전쟁의 추체가 아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민족주의로 무장한 새로운 시대의 시민군은 곧 국가상비군 체제를 완성시켰으며, 마침내 국가가 군대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근세 동인도회사들이 국가의 요구 또는 필요에 의해 사적으로(그것도 법인체의 형태로써) 무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오늘날의 민간군사기업의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많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현대적 민간군사용역회사의 등장

현대적인 민간군사용역회사의 뿌리는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혁신적인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Special Air Service)를 창설한 데이빗 스티어링(David Stirling)은 1967년 SAS출신들을 고용하여 20세기 최초의 민간군사 용역회사인 Watch Guard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당시에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30) 1757년, ‘캘커타 블랙홀 사건(프랑스 동인도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에 의해 63명의 영국 동인도회사직원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복수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무역전체를 무력으로 장악하였다. 또한 1759년에 영국 동인도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지상전과 해상전에서 격파한바 있다. - 피터 W. 싱어, 전거서, p74

31) 가령 1757년에 영국 동인도회사가 프랑스의 한 요새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런던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12% 올랐다. - 상거서, p75

술탄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를 훈련하는 용역을 맡은 바 있다.

이른바 아프리카의 시대³²⁾라고 일컬어지는 1960년대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³³⁾가 절정에 이르렀던 1970년대에 이 지역에서 용병의 활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민간군사용역회사들이 등장하게 된다. 용병 활동의 황금기였던 이때, 나이지리아 내전, 앙골라-로디지아 전쟁, 우간다-탄자니아 전쟁, 남아공 공산 게릴라 준동 등 이 당시 용병의 활동무대는 아프리카에서 폭넓게 분포해 있었다. 이는 아프리카 각국이 독립운동과 더불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 기인한바가 크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의 업무를 민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때, 역시 SAS출신들이 군사부문 컨설팅 및 훈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1981년 영국에서 모리슨(Alastair Morrison)에 의해 DSL(Defence Systems LTD)이 설립되었다. DSL은 국제적으로 인식된 기업으로서 합법적 계약을 통해 전직 군인들을 안보컨설턴트나 군사훈련 고문관으로 고용했으며, 분쟁지역에 자산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찍부터 군산복합체가 발달한 미국 역시 민간군사용역시장에서 영국 이상의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미 베트남전쟁 때부터 민영업체들이 전쟁에 참여³⁴⁾해왔고, 베트남전 덕분에 미국출신의 잘 훈련된 용병들은 아프리카와 남미등지에서 가장 흔한 용병 인력 구성원이 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 민간군사 용역 시장의 특징은 미군 고위직에서 전역하거나 행정부 고위관리를 지내던 이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다는 점이다.

32) 1960년에만 아프리카 17개국이 독립했다. 그 당시 언론들은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기도 했다.

33) 원래는 분리·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카언어(語)이다. 특히 1989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16%의 백인이 84%의 비백인(주로 흑인)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차별해 왔다.

34)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미 육군 공병대의 임무를 군산복합체인 Pacific Architects and Engineers(PA&E)가 수행한바 있으며, Vinnell과 Halliburton사는 병참지원율, Cubic, General Dynamics와 Lockheed Martin은 수년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무기생산을 비롯하여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인력공급, 모의실험장비 및 과학기술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최근, 아버지 부시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딕 체니(Dick Cheney)는 헬리버튼에서 CEO로 일 하던 중, 아들 부시행정부에서 부통령이 되었는데, 딕 체니가 몸담았던 헬리버튼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거대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발휘 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민간군사기업의 특징

그렇다면 과거의 용병조직과는 다른,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군사용역이 법인화 되었다는 점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기업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운영된다. 과거 용병 부대를 모집하고 조직하는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과거 용병 거래는 거의 대부분 은밀한 법률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다.³⁵⁾ 또한 용병들을 부대로 조직하는 경우에 이 조직은 완전히 임시변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임시변통의 결과로 용병집단은 능력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용병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지역에 병참과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므로 아웃소싱의 주변적인 양상만을 보여 줄 뿐이었다. 이에 반해 민간군사용역회사들은 회사정책에 따라 계약상대를 선택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거나 비 핵심적인 기능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현대 일반기업들이 보여주는 법인체로서의 영리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법인체를 구성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더욱 개방적인 공개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과거 용병조직의 은밀성과는 달리 민간군사기업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는커녕 합법적인 법인체로서 활동하며 종종 자신들이 하는 서비스를 대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³⁶⁾ 따라서 현재의 민간군사기업들은 법률을 피해 정체

35) 많은 경우 용병을 모집할 때 오늘날과 같이 공개시장을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신문에 모호한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 하여 병사들을 모았다. - 피터 W. 싱어, 전게서 p85

를 숨기려는 속성을 가진 과거의 용병조직과는 뚜렷한 구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군사기업들은 과거 용병조직에서 제공하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군사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들은 서비스 제공 업체인 것이다. 민간군사기업들은 전술 외적인 부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곳의 시장과 전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³⁷⁾

법인이라는 형식 및 이러한 개방성은 또한 인력 채용방식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대부분 공개채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회사 간 인력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다. 기업들은 재교육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우수한 인력³⁸⁾들을 추려내 적합한 임무에 맞도록 만든다. 그 결과, 능력 증대와 아울러 더욱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가능케 했다.

민간군사기업의 대다수는 보통 사업상의 특성 때문에 자국 정부와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부가 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더군다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그동안 국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던 무력 사용권이라는 데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형태로 국제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의 공적 부문인 군대와 현대적인 사기업 법인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역설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군대의 기능을 하는 법인 사업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 산업은 21세기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과 사영화의 소산이며, 국제 정치와 전쟁의 오랜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과거 용병 조직과 현대 민간군사기업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 2> 이다.

36) 거의 대부분의 민간군사기업들이 자사의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다.

37)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 가운데에는 다국적기업, 국내외 정부, (UN같은)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등이 포함된다.

38) 군 특수부대 출신들은 특히 Black Water나 Sandline International같은 요인경호 및 치안유지 중심의 민간군사기업들이 선호하는 인력모델 중 하나이다.

〈표 2〉 과거 용병과 현대 민간군사기업의 차이점

구 분	과 거 용 병	민 간 군 사 기 업
조 직	개별 병사들이 임시로 모인 조직	기업구조(법인체)
동 기	단기적인 경제적 보수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아닌 기업 이윤추구
인력채용	사범당국의 기소를 피해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채용	공개채용 및 특화된 인력 채용
업 무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단일 고객을 위한 전투업무에 집중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광범위한 군사용역 제공



제 3 장 민간군사기업의 분류 및 사례연구

제 1 절. 민간군사기업의 분류

민간군사기업들은 시장 자본 규모, 직원의 수, 기업의 과거 기록, 다른 기업과의 연관성, 직원들의 경력과 특징, 본국에 위치한 본부의 지리적 위치와 활동무대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민간 군사산업을 하나로 묶어 주는 유일한 요소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모두 군사 영역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형적인 분석적 구분은 민간군사기업들을 전반적인 활동수준에 따라 ‘소극적’활동을 하는 기업과 ‘적극적’활동을 하는 기업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Executive Outcomes)의 경우처럼 전투 작전이나 영토탈환에 참여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범주에 속하는 반면,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의 경우처럼 훈련 및 군사고문을 주로 하는 기업은 ‘소극적인’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갖는 궁극적인 문제점은 ‘소극적인’ 기업과 ‘적극적인’ 기업이 주관적이고 개념상의 구분일 뿐, 실제로는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랙워터’(Black Water)는 적의 부대를 공격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활동대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VIP를 경호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통제권을 장악하고 군사공격을 저지하며, 예방의 차원에서 군사력을 행사하기도 한다.³⁹⁾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형태는 전역(戰域)에서 활동하는 군부대의 유형에 의거하여 전장에서의 공간적인 위치와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⁰⁾

39) 블랙워터는 잠재위협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 나자프 등지에서 미군과 공동 군사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1. 군사력 제공(Military Provider)기업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전술상황에 초점을 둔다. 전투공간의 최전방에서 실전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야전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통솔력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국가의 군대 전반에 분산되어 전투력의 승수효과⁴¹⁾를 추구한다. 고객은 긴급하고 위협이 높은 상황에 처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특수부대 형태를 제공하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Executive Outcomes)와 ‘샌드라인’(Sandline)이 전통적인 사례이며, 공중정찰 능력을 보유한 ‘에어스캔’(Air Scan)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2. 군사자문(Military Consulting)기업

자문과 훈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이들 기업은 군대의 기능발휘나 구조조정의 핵심인 전략 및 조직상의 제반 분석을 제공한다. 이들은 군 운용에 대한 고도의 경험과 지식이 강점이며, 그 어떤 국가의 상비군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업의 직원들은 직접적인 전투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대전에서는 지식과 훈련의 적용이 종종 화력의 적용만큼이나 값진 효과를 발휘한다. 대표적인 기업인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는 12,000명 이상의 장교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3. 군사지원(Military Support)기업

비록 기획수립이나 직접적인 적대행위의 수행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병참, 기술지원 및 수송 등 전투 작전에 필수적인 군사적 영역의 후방지원이나 보조적인 서비스 등, 기능적인 소요를 충족시킨다. 이들 기

40) 피터 W. 싱어, 전계서, p162

41) 원래는 경제용어로 한 경제변수의 변화가 직접·간접으로 효과를 순차적으로 파급, 경제체계 전체를 새로운 수준으로 유도할 때 나타나는, 다른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배수관계를 나타낸다.

업의 전형적인 고객은 범세계적으로 긴급하게 해외 개입에 나서는 선진국들이다. 일종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자사의 초기 사업 영역에서 우위를 달성하면 군사지원분야로 확장해나가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어 ‘론코’(Ronco)는 한때 개발지원 회사였지만 지뢰제거(Demining) 분야로 진출한 경우이다. ‘브라운 앤 루트’(Brown & Root)는 대형 건설 업체였으나 공병 분야로 진출하여 소말리아, 아이티, 르완다 및 보스니아에서 미군을 증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코소보의 미군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획득하기도 했다.

제 2 절. 민간군사기업 사례연구(CASE STUDY)

1. 해외 주요 민간군사기업(군사력 제공/자문/지원)

가. 군사력 제공 기업 : Executive Outcomes

198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 및 나미비아 사이에서 벌어진 국경분쟁의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정책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남아공 국방군의 대폭적인 인원감축이 뒤따랐고, 그 결과 속칭 32대대⁴²⁾나 공수부대, 혹은 장거리 경찰대와 같은 특수부대들은 해체⁴³⁾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이 부대 소속의 많은 인원들은 과거 CCB(Civil Cooperation Bureau : 악명 높던 정적암살부대)소속이

42) 1970년대 아프리카 각국. 특히 로디지아에서는 인종문제로, 앙골라는 이념문제로 장기적인 내전이 일어나는 혼돈의 시대였으며 또한 보병전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다. 특히 대표적인 부대가 로디지아 SAS였다. 로디지아란 국가가 잠비아와 짐바브웨로 분리된 후 로디지아 SAS는 남아공 군대에 그대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들이 남아공 32대대의 모태가 된다. 이부대의 임무는 비정규전 수행으로 주로 매복과 기습, 적 지휘부에 대한 테러 및 사보타지를 담당하는 특수부대로 현대 보병전술을 새로 만들었다 할 만큼 새로운 전술과 전략으로 유명했다. 1993년 해체 때 까지 남아공의 국경분쟁에 동원된 이 부대는 단순히 전투력이 높은 부대로만 유명하지 않다. 사실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고 만들었지만 이들이 훈련받은 곳이 바로 영국 SAS인 것은 변함 없는지라 영국의 충실하고 능력 있는 전투원 만들기엔 일조한 부대일 뿐이라는 과소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43) 이때 직업을 잃은 남아공 군인들은 약 6만 명에 달한다.

었고, CCB 요원을 지낸 이반 발로(Eeben Barlow)는 정치적 보복을 피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 바로 Executive Outcomes의 등장이었다. 이들은 민간군사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군사력 공급 기업이었다. 특히 90년대 아프리카에서 이들의 활동은 민간군사기업의 상징과도 같았다. 1995년, 아프리카 중서부 끝단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 정부군은 무기력한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외국인과 대사관 직원들의 탈출이 시작되었고 정부전복은 시간문제였다. 이때 다급해진 시에라리온 정부는 Executive Outcomes와 계약을 하게 된다. 그 후 상황은 돌변하였다. 신속하게 배치된 현대적인 타격부대가 정밀한 공중 공격 및 포격으로 반군을 괴멸시켰다. 이들은 시에라리온 정부의 주 수입원인 다이아몬드 광산을 우선적으로 탈환했으며, 반군의 밀림 비밀근거지를 끝까지 찾아내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다 할 동맹국도, 의지할 강대국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라리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Executive Outcomes와 같은 민간군사기업뿐이었다. 며칠 만에 정예 전투부대를 조직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Executive Outcomes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군사력 제공 기업으로서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까지도 인정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군사력 제공 기업이기도 했다. 또한 Executive Outcomes는 전 직원에게 생명보험과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모범적 기준을 확립한 첫 번째 민간군사기업의 하나로 이 점에서 역시 혁신적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회사차원에서 전직 남아공방위군 인력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공통된 훈련과 기존의 위계질서, 그리고 저강도 전쟁(Low Intensive Conflict)과 대(對) 게릴라 활동 등에서 쌓은 전투경험 등을 손쉽게 확보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Executive Outcomes는 자체적인 기업 망을 통해 원활한 임무수행을 도모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비스에어(Ibis Air)와의 연계이다. 역시 민간군사기업중의 하나인 아이비스 에어는 한마디로 Executive Outcomes의 사설 공군이라 할 수 있다. 아이비스에어와 연계를 맺음으로써 Executive Outcomes는

세계 어느 곳이든 전투부대를 수송·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능력이다.

1999년 1월, 정치적 상황⁴⁴⁾에 의해 Executive Outcomes는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당시 성급한 평론가들은 ‘군사력 제공 기업은 이제 생명력이 다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과거 Executive Outcomes에서 일하던 많은 임원 및 직원들이 그들과 함께 일한바 있던 전 세계 수많은 민간군사기업들, 즉 샌드라인(SandLine), 라이프가드(Life Guard), 알파5(Alpha5), 사라센(Saracen), 케이프인터내셔널(Cape International)등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결국 Executive Outcomes는 법적으로 사업을 정리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업을 세계화한 것이다.

Executive Outcomes는 군사용역 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민간군사산업 전반의 선구자요 혁신자였다. 이들이 보여준 군사력 공급 기업으로서의 임무수행 능력은 민간군사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나. 군사자문기업 :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MPRI는 군사자문기업 부문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1987년, 전직 미군 고위급 장교 8명이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세운 이 회사는 사실 민간군사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진 기업이기도 하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군사기업이기도 하다.

초기 MPRI의 최고 경영자인 버논 루이스(Vernon Lewis)는 미육군 소장 출신이며 MPRI의 이사회는 14명의 퇴역 장성이나 전직 해군 제독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걸프전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퇴역 4성 장군인 칼 부오노(Carl Vuono)가 회장으로 있다.

44) 남아공 정부는 과거 Executive Outcomes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수호에 일조한 것과 관련 하여 매우 당혹해 했다. 결국 1997년에 민간군사용역의 새로운 거래를 규제하기위한 국내 입법이 시행되었고, 1999년 ‘해외군사원조 규제법’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2002년, 40명의 본부 직원이 계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한편, 약 8백 명의 인력이 전 세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1억 달러로 추정된다.⁴⁵⁾

MPRI의 핵심 자산은 세심하게 관리하는 전직 군 인사들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인력을 선발한다. 이 회사가 전적으로 미군에서 퇴역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직원 대부분이 전직 군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이 회사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MPRI는 경쟁 업체들에 비해 결정적인 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MPRI가 처음 체결한 국제 계약의 대부분은 미국 고위관리들이 직접 추천해 준 것들이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 국방부 특수전 및 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보인 브라이언 셰리던(Brian Sheridan)에게서 추천을 받은 뒤에 MPRI와 계약을 맺었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MPRI가 전 세계에 회사 이름을 각인시킨 것은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발발한 내전 때문이었다. MPRI는 미 국무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자사 직원 45명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공식적인 역할은 유엔의 제재를 감시하는 국경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었으나, 더욱 중요한 역할은 크로아티아공화국과 계약을 맺고 이 나라의 군대를 전문적인 전투 집단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떨어져 나온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계가 크라지나(Krajina)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변변찮은 무장만을 갖춘 민병대로 이를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은 친 러시아성향의 회교세력인 세르비아에 맞서 보스니아 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당시 교전 당사자 모두에 대해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의 1991년 무기금수조치 때문에 이는 좀처럼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45) 피터 W. 싱어, 전게서, p245

국방부가 크로아티아 국방부에 MPRI를 추천하였다. 워싱턴 협정을 통해 크로아티아는 MPRI와 계약을 체결하였다.⁴⁶⁾ 이 계약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은 크로아티아 군대를 ‘평화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⁴⁷⁾의 후보로 적합하도록 더 전문적이고 NATO 기준에 맞는 군대로 바꾸는데 일조한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된 크로아티아군은 1995년 8월, ‘폭풍 작전’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여 전쟁의 추이를 일시에 뒤집어 놓았다.⁴⁸⁾ 중요 요충지의 세르비아계 방어선이 삼시간에 무너졌고, 일주일 만에 전 지역이 크로아티아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포위당한 세르비아인들은 결국 휴전에 합의했고 데이턴 협정(Dayt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⁴⁹⁾ 이후 MPRI는 발칸반도에 남아 계속 활동을 하였으며 보스니아와 맺은 계약에 뒤이어 신생국 마케도니아와 계약을 맺고 마케도니아 정부의 군대와 국경경비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⁵⁰⁾

MPRI는 국제무대로 활동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 특히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부위협 분석과 더불어 군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대관리, 필수물자 확정, 부대 개발 및 설계, 군수조달, 군수 관리, 부대통합에서부터 군사교리, 지휘관 육성, 병참, 참모조직 같은 군 조직의 핵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 이래 MPRI는 쿠웨이트에서도 활동하면서 중대 및 대대 규모의 기동부대별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MPRI는 아프리카에서도 활동하였는데, 1996년에 앙골라 군대와 경찰에 유사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6천만 달러 상당

46) 미국 중재로 보스니아 내부에서 갈등 중이었던 무슬림계와 크로아티아계를 하나로 연결한 협정이다. 이는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세르비아계를 견제하여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47)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이루던 동유럽과의 안보 협력을 위한 나토의 프로그램이다.

48) 당시 공격을 지켜본 유럽의 군 장교들은 세르비아가 장악한 영토로 진입하는 초기 크로아티아의 도강작전에 대해 ‘미군야전교범의 도강 항목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군대가 크로아티아인들이었다는 점뿐이다.’라고 한 바 있다.

49) 크로아티아계는 보스니아 내부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던 세르비아계와 1995년 11월 데이턴 협정을 통해 휴전을 선언하였다.

50) 피터 W. 싱어, 전게서, p234

의 계약을 앙골라 정부와 맺었다.⁵¹⁾ 1999년에는 나이지리아 군대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와 군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7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을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받은바 있다.⁵²⁾ 2000년 7월에도 적도기니 정부와 ‘국가안보향상 계획(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Plan)’ 입안 및 연안 방위부대 창설에 조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⁵³⁾

MPRI의 활동은 군사 용역의 민영화가 미국 정부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MPRI라는 민간군사기업은 미국 군대가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곳까지 진출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상 목표를 진척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할 수 있었고, 개입을 제한하는 공공의 감시나 논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정부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여 더 저렴한 비용과 훨씬 낮은 정치적 위험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가지게 되었고, MPRI는 미군의 군사용역 민영화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다. 군사지원기업 : KBR(Kellogg, Brown & Root)

KBR은 군사지원용역 분야를 좌우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KBR은 토목이나 에너지 서비스 같은 군사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군사지원분야로 뛰어 들었다. KBR은 기존의 민간군사기업(Executive Outcomes 나 MPRI같은)들과는 약간 다른 경로로 군사사업 영역에 진입한 기업이다. 하지만 KBR은 기존 민간군사기업들과 중요한 공통점도 몇 가지 있다. 즉, 미군의 대규모 감축 및 이와 동시에 이루어진 미군의 지역분쟁 군사개입의 확대로 말미암아 발생한 민간군사산업 영역에 거의 같은 시기에 뛰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민간군사기업과 마찬가지로 KBR은 신규채용인력의 상당부분이 최근 퇴

51) 상계서, p235

52) 피터 W. 싱어, 전계서, p237

53) Justin Brown, "The Rise of the Private-Sector Military",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5, 2000, p74

역한 장교라는 점 등이다.

1963년 창업자 조지 브라운(Geroge Brown)은 3천 6백 7십만 달러에 KBR을 헬리버튼社(Halliburton)⁵⁴⁾에 매각한다. 당시 헬리버튼은 유정건설 및 설비 산업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헬리버튼이 KBR을 매입한 이유는 토목 분야에서 보이는 KBR의 모험적인 사업운용 - 최초의 해상석유시추시설과 같은 - 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 듯하다.⁵⁵⁾ 이 후 헬리버튼은 북해와 중동지역에서 유전을 발견, 개발하고 KBR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토목건설회사로 성장하였다.

KBR이 군사용역시장으로 결정적인 팽창을 하게 된 것은 1992년 미 육군의 ‘민간군수지원 프로그램(LOGCAP : Logistics Civil Augmentation Program)’을 통해 해외 긴급 군사작전의 병참 부문 계획을 담당하는 계약을 따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국 군대가 세계적인 규모의 계획입안을 최초로 민간 조직에 하청을 준 것이었다.⁵⁶⁾ 그 뒤 10년 동안 헬리버튼은 사업을 계속 확대했고 관리구조를 모두 통합하는 방식으로 회사 전체를 재조직화하기도 했다. 1995년에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딕 체니(Richard Bruce Cheney)가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헬리버튼에 합류 하였다. 1996년 석유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회사는 10여 년 만에 최고의 재정기록을 남겼는데, 이러한 성공은 부분적으로 거의 10억 달러의 수입을 추가한 KBR의 수익성 좋은 군사 계약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 수익성 좋은 군사계약은 MPRI와 마찬가지로 유고내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KBR이 발칸전쟁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음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5년이였다. NATO 보스니아평화유지군(IFOR)의 평화유지 작전의 일부로 미군병사 2만여 명이 이 지역에 배치되면서 KBR은 군 용역을 지원하게 된다. 미 육군은 이 작전에 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KBR에 5억 4천 6백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 계약은 원래 미

54) 1919년 얼 P. 헬리버튼(Earl P. Halliburton), 허먼 브라운(Herman Brown)이 설립하였다. 유전, 엔지니어링, 건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석유업체 등의 산업체와 정부 기관에 제공한다.

55) 피터 W. 싱어, 전개서, p246

56) 상계서, p247

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영역에 배치된 동맹국 군대들 역시 병참을 KBR에 의존하였다. 당시 KBR은 보스니아뿐만 아니라 미군 병력이 배치된 크로아티아와 헝가리에서도 활동을 하였다.⁵⁷⁾

KBR은 1999년에 벌어진 코소보 내전에서 다시 계약을 따냈다. NATO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KBR은 코소보 국경 외곽에서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에 배치된 미군에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소보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알바니아계 난민들을 수용할 수용소를 건설하고 운영하였다. 코소보에 진출하고 첫 90일 동안 KBR은 7천여 명을 수용하는 막사 192개소, 헬기 임시 착륙장 13개, 항공기 보수시설 2개소, 군인식당 12개, 기지 대규모 식당 2개, 임시 목욕탕 37개를 건설했다. 과거 미군의 공병대가 맡았던 이러한 작업을 벌이는 한편, 회사는 동시에 미군을 상대로 고품질 식사 1,134,182명분, 물 55,544,000갤런, 디젤연료 383,071갤런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필수 병참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KBR은 간이화장실 671개와 총 31,037회에 걸쳐 분노를 처리하였고, 쓰레기 89,228톤을 수거했으며, 컨테이너 4,229개 분량의 화물을 처리하였다.⁵⁸⁾ 이러한 수치는 KBR이 제공한 군사용역의 일부일 뿐이다. KBR은 민간기업이라는 포장만 들었을 뿐, 사실상 미군의 보급 및 공병부대나 마찬가지였다.

병참과 공병분야에서 KBR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동은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도 계속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앞서 2억 달러 규모의 미군 숙영시설 공사를 수주한 KBR은 전쟁포로 수감시설공사와 침공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증거 수집을 위해 파견된 이라크 조사단(ISG) 숙박시설 공사 등 각종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또 침공 직후인 2003년 3월에는 이라크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개 분야에 걸친 7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내는 등 굵직굵직한 계약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Private Warrior」의 저자 켄 실버

57) 할리버튼 웹사이트. <http://www.halliburton.com>

58) Donald T. Wynn, "Managing the Logistics-Support Contract in the Balkans Theater", Engineer, July 2000, p75

스타인(Ken Silverstein)은 그의 저서에서 KBR이 2003년 침공당시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미 국방부와 각종 군수지원 및 병참업무 계약을 통해 총 130억 달러 상당의 계약고를 올렸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차 걸프전 당시 쏟아 부은 군비를 현재 달러화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약 2.5배에 이르는 액수이다.

미행정부가 KBR과 같은 군사지원기업을 활용하여 군사용역을 민영화하는 이유에는 지난 유고내전에서 KBR의 활약에서 보았듯이 군사지원기업의 신속하고 전문화된 병참제공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의 파견규모를 줄임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KBR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군대 파견규모를 약 9천 명 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⁵⁹⁾ 이는 민간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미 지역에 파견된 군 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더욱 필요한 군사작전에 투입할 수 도 있는 이점이 있다.

코소보 작전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데니스 라이머(Dennis Reimer)는 KBR에 직접 감사를 표한 바 있는데, 그의 감사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 - 전략 - KBR의 지원은 이러한 진전(평화유지 임무 달성)을 이룩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방문하는 곳마다에서 귀사의 노력의 성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귀사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과 귀사 직원들의 이루 해야될 수 없는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번 일(코소보 작전)은 위대한 성공담이며 KBR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⁶⁰⁾

2. 해외 기타 민간군사기업

가. 미 국

(1) 다인코프(Dyncorp)

59) Donald T. Wynn, op.cit., p77

60) 피터 W. 싱어, 전계서, p245

다인코프는 마약 방지 작전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문
어발식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이다. 미 버지니아 주
에 본사를 둔 다인코프는 환경 정화나 정보 기술 부문은 물론 국가 안
보 관련 분야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946년 캘리포니아 이스턴 에어웨이(California Eastern
Airway)라는 항공회사로 출발하여 2002년 매출액 23억 달러(전년비
18% 증가)를 기록했으며 2002년 말 IT컨설팅 업계의 유력기업 CSC에
10억 달러로 매입되었다. 이 회사에는 대부분 미군 특수부대 출신인
23,000 명의 직원이 있으며, 전 세계 550여 지역에는 다인코프 지점이
있다. 현재 해군과 에너지부의 문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폴 람바르
디(Paul Lombardi)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회
사는 콜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언론에 ‘Shadowy
Company’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의 사업을
수행했으며 미 국방부와 마약 단속국(DEA), 연방통신위원회(FCC), 국
세청(IRS), 재무부 등에서 업무를 수주 받고 있다. 이라크 전쟁기간에
는 전쟁물자 보급을 맡았으며 현재 이라크 내 평화유지와 재건에도 깊
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이 업체는 미 국방부가 외국에 미군을 파병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기지 기반 시설 공사를 따 냈다. 다인코프는 또 앙골라에서 유
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고, 1999년에는 미 국무부가 맡주
한 코소보 지역에서 정전 합의 이행 감시단 지원 업무를 맡기도 하였
다. 특히 이 업체는 미 국무부가 마련한 신생민주주의국가 치안유지 프
로그램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은 파나마와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보스니아, 아이티 등지의 경찰 병력
훈련을 지원하였다. 아이티의 경우, 1995년 미군이 아이티를 점령하고
쫓겨났던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복귀시킨 뒤 현지 경찰 훈
련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다인코프는 다른 여러 업체와 함께 미 국무부
에 고용돼 군을 대신해 가장 중요한 치안 병력으로 떠오른 아이티 국
립경찰(HNP) 훈련 및 배치 임무를 맡았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다
인코프 소속 훈련 교관들은 아이티에 남아 경찰 부대의 기술 자문을

말았다.

최근 다인코프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콜롬비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현 부시 행정부까지 군사 지원 및 군수품 수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콜롬비아에 파견된 이 업체의 직원은 수백 명에 이르며 감시 시설 운영 및 보안군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콜롬비아 국토의 절반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좌파 게릴라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콜롬비아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다인코프 직원은 공식적으로 게릴라 조직과의 전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콜롬비아 경찰 조종사 훈련과 ‘불법 재배 마약’ 퇴치 작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다.

다인코프의 계약이 국방부보다 국무부와 주를 이루다보니, 한편으로 이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적 조직이 아닌 미국의 정책을 은밀히 수행하는 공적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과거 1960년대에 CIA가 설립한 ‘에어아메리카(Air America)’나 ‘인터마운틴(Intermountain)’의 경우 사적기업이라는 형태로 미국의 정책을 수행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다인코프는 금융 기관과 개별 주주들이 존재하는 실제 기업이며 국무성과의 공개적인 계약 하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분명 구분된다. 오히려 다인코프의 경우는 민간 군사 기업의 활용이 또 다른 이점을 보여 준다고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냉전 시대 때 활용했던 위장용 간판 회사를 민간 군사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블랙워터(Black Water)

블랙워터의 창립자는 전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에릭 프린스(Eric Prince)로 그의 형은 공화당의 미시간 주지사 후보였다. 에릭 프린스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인턴을 지낸 바 있다. 게리 잭슨(Gary Jackson) 현 회장도 공화당에 많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2월부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코퍼

블랙(Cofer Black)은 28년간 CIA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며 1999년 CIA 반테러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미 국방부 반테러대책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다.

1998년에 설립된 블랙워터는 그린베레(Green Beret), 레인저(Ranger), 델타포스(Delta Force), 네이비실(Navy Seal) 등 대부분 미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을 채용, 시가전과 테러진압, 요인경호 등에서 미군 이상의 작전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보안전문업체이다. 현재 이들은 단순 용병을 넘어 펜타곤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 본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다. 미국 내에 면적 2,400만 m²을 넘는 자체훈련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 훈련장에서 지금까지 5만여명의 요원을 훈련시켰으며, 세계 최고의 민간군사훈련장으로서 미군 현역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기도 한다. 이 회사의 2002년 이후 수주액은 3500만 달러가 넘고 있다.

블랙워터는 특히 군 전역자들에게 인기 높은 기업이다. 그 이유는 근무조건과 보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3개월의 단기계약도 가능하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지급받는 일당도 500~1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다.⁶¹⁾

블랙워터는 자체적으로 헬기는 물론 때때로 정규군을 능가하는 화력을 보유⁶²⁾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단독작전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이다. 2004년 3월 31일, 이들이 갑자기 유명세를 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피살되었는데, 성난 이라크 군중들은 불탄 시신들을 차에 메달아 끌고 다녔으며 시체 2구를 유프라테스 강 다리에 걸어 놔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미국 내 보복여론이 들끓었고 미군은 즉시 팔루자를 포위공격,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시 언론에선 사망한 이들 4명이 민간인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이들은 블랙워터 소속 경호원들이었다. 블랙워터는 이라크 점령 후

61) 미군 특수부대의 경우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의 연봉이 5만 달러에 불과하다. 전역할 경우 해마다 연금은 2만 3천 달러 정도.

62) 미군이라고 항상 막강한 무장헬기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팔루자 작전당시 미군의 블랙워터 소속 무장헬기에 종종 화력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이라크에 종군한 군사전문기자와의 인터뷰

이라크 임시행정청의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블랙워터는 민간군사기업의 위험성 또한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7년 10월, 바그다드 한 복판에서 블랙워터 직원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무고한 민간이 17명이 사망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라크 전에서 이익을 취해온 블랙워터가 순순히 이라크에서 물러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라크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른 블랙워터의 직원들은 여전히 이라크에 머물고 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민간군사기업에 의존해 이라크 전을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었다. 군인이 아닌 전쟁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형국이 된 것이다. 아울러,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인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3) 비넬(Vinelle), SAIC, 큐빅(Cubic)

경제 · 전략적으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중동 지역에서는 비넬社の 활동이 가장 눈에 띈다. 비넬은 미군과의 연계 없이 외국의 보안병력에 대한 훈련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국무부로부터 최초로 인가 받은 민간 군사 기업이다. 당시 비넬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을 훈련시켰으며 주 임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경호였다. 1997년 거대 군수 업체TRW(TRW Inc.)가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으로부터 이 회사를 인수하였다. 투자 회사인 칼라일 그룹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백악관 예산 담당 비서관을 지낸 리처드 타먼, 국방장관 출신 프랭크 칼루치 등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부터 왕가를 보호할 근위부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를 훈련하기 위해 약 1천 4백여 명의 비넬 사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약 8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비넬 직원 대부분은 미 육군 특전사 출신이다. 이들은 사우디아라

비아 전역의 다섯 개 방위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군인들에게 새로운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 군수품 조달 업무를 감독하는 한편, 기계화 부대의 전술훈련도 맡고 있다. 걸프전 당시 이 업체 직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병력과 함께 배치됐으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상여금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이 업체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병력은 비넬 직원 없이는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중동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또 다른 업체로는 SAIC을 들 수 있다. 공식적으로 SAIC은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의 시스템 분석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업무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SAIC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공 방어 체제 통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방공망 운용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회사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군 간부진을 본사가 위치한 샌디에이고로 불러 해군 시스템 관리 및 운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SAIC은 1969년 SAI라는 회사로 출한한 IT컨설팅과 군 관련 소프트웨어, 첨단 무기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기업이었다. 1990년대 중반 ‘신티닉(Syntonic)’과 ‘네트워크 솔루션(Network Solutions)’라는 IT업계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IT업계의 실력자로 대두되었으며, 이후 정부 싱크탱크인 ‘에어스페이스(Aerospace Corp)’을 인수하여 민간 군사 산업의 영역에 발을 디뎠다. 2002년 6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4만 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 걸프지역에 15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끝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민간 군사 기업 큐빅이다. 1951년 군사전자장비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미국 무기 산업계의 기업이었으나 1994년 타이탄(Titan Corp) 사의 군대 훈련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사업 분야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민간 군사 사업에 뛰어들었다. 90년대 들어 국방 분야 예산이 줄어들음에 따라 교통이나 가정용품 쪽의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현재 동구권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NATO 회원국의 군대 훈련계약을 펜타곤과 체결함으로써

민간 군사 기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01년 미 공군 전투훈련 시스템 계약을 4천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2002년에는 미 육군과 ‘복합레이저유도시스템(MILR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판매 계약을 천 2백만 달러에 맺었다. 이 기업은 ‘감시레이더시스템(STARS”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에 이용되는 데이터 링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지상군과 공중을 연결하여 지상군 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활용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2002년 순이익이 전년비 41%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이전 4년간 주가가 3배나 폭등하였다.

주력 사업 분야는 방위분야에서 통신 및 감시, 정찰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미군 훈련 부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에 대비하여 2003년 1월에는 6천 5백 명의 군사훈련 계약을 맺어 수행하였다. 현재 600명 이상의 전직 장교를 고용하여 전장에 투입할 예비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현재 직원은 총 4천 5백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유 럽

(1) 영 국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군사기업으로는 Sandline International, 방위시스템회사(DSL), Saladin Security, Global Risk등이 있다.

Sandlins International은 군사자문과 군사훈련, 지뢰제거, 요인 근접경호, 군수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7년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와 부건빌 섬에 있는 반군 토벌작전에 참가하고 정부군 훈련대가로 약 3,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Global Risk는 이라크 전후 행정을 담당하는 연합국 임시기구(CPA)에 무장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Saladin Security는 영국 국방부로부터 오만 정부군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교육을 시켰다.

DSL은 이라크 유전개발과 시설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군사기업은 규모면에서 미국의 군사기업보다 적고, 서비스 내용도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쟁에 의한 이익 추구에 치중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민간군사기업은 ATCO Frontec, Ednoonton, Alberta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와 계약에 의해 2년간 보스니아에 파견된 병사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군의 병참·보급·물자수송·정비 및 비 전술 통신 등의 지원 분야와 전기 및 급수시스템과 같은 병영유지에 필요한 건설공병 및 시설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20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운용한바 있다.

(3) 독 일

현재 독일에서는 1965년부터 ‘군부대 경비 법’이 실행됨에 따라 군부대 시설을 민간인이 경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으로 제공되어 있어, 군대시설경비를 민간군사기업의 한 형태인 계약에 의한 민간경비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후부터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경비를 민간경비회사에서 기계경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기술 분야로 확장하여 시행하고 있어, 현재 독일 민간경비업체가 2,500여개에 14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성장배경은 공공부문의 위탁발주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 및 적용을 고려할 때에 군부대 시설경비분야를 민간군사기업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민간경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 국내 민간군사기업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이었던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외국 업체로의 취업과 국내업체의 진출로 우리 기술 인력이 급격히 베트남으로 진출하였으며 1966년도에만 1만 명 이상이 베트남으로 갔다. 약 25,000여 명이 베트남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들 한국인 모두가 민간군사기업의 종사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상당 부분이 민간군사기업의 종업원 모습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진상사를 들 수 있다.

케논항에서 미 군수물자의 하역 및 수송 계약을 맺은 한진상사는 1968년 베트콩의 구정공세 시 한국군으로부터 소총 50정, 실탄 5만여 발, 수류탄 250발 등을 지원받아 50여 명의 베트콩과 밤새 총격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격퇴한 사례도 있고, 군수물자 수송 중 베트콩의 기습을 받으면 우리 군이 보복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진상사가 민간군사기업으로 활동 중 교전행위까지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⁶³⁾ 그러나 우리나라가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한 사례에 대한 연구와 자료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군의 정책적 지원 하에 설립된 기관⁶⁴⁾에서 민간군사기업과 유사하게 군 관련 사업을 아웃소싱 받아 국방 및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예비역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역사업과 관련된 회사는 주로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경비회사들 중 일부에서 미국의 PMC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준이다.⁶⁵⁾

최근 국내 최초의 군사용역 및 군사자원개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립된 (주)승진 MR&D(Military Resources and Development)회사가 미국의 MPRI이나 KBR의 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63)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279

64)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 및 군사 분야에 관한 제 분야를 연구, 분석하여 국방정책수립 및 군사 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www.kims.re.kr.)

65) 군사관련기자와의 직접 인터뷰로 확인하였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전문적인 군사용역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비역 일자리 창출과 활동영역 확대, 군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운용개념과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를 목표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의 특징적인 사업 분야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승진 MR&D의 주요 사업 분야는 군사용역, 자원개발, 일반물자 납품,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써 현재 이를 계획 및 준비하고 있다.

군사용역분야의 국내 사업으로는 예비역 영관장교 및 장군을 활용하여 정책과제연구, 교범 및 교리 연구사업, 해외자료의 번역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각종 조사자료 조사 분석 등을 수행 하고 있다.

해외사업은 재향군인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과병부대에 대한 급식자재 및 소요장비, 물자 등을 납품하고 주둔지 시설 보강공사, 정비 및 수송 등의 기능분야 지원을 하고 있다.

자원 개발 분야는 훈련 교보재 개발 및 주요 장비 및 물자 개발, 무기체계 개선, 신기술 연구, 각종 군사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물자 납품 분야는 컴퓨터관련 자재 납품 및 설치, 일반장비 및 물자 납품, 민간업체 제품조립 및 납품 등 다양한 민수품 납품을 준비 및 계획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G&K 건설을 활용하여 자이툰부대 시설공사 참여 및 이라크재건사업 등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수행 업무 분야는 다음페이지 <표 3> 에서 제시하였으며 이는 (주) 승진 MR&D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다.

<표 3> 에서와 같이 (주) 승진 MR&D는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특징을 참고로 하여 많은 업무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업무분장일 뿐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 갖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단, (주) 승진 MR&D는 군사용역 서비스 사업을 G&K 건설는 시설 및 재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시는 재향군인회의 해외사업단을 활용하여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민간군사기업과의 대외 인지도와 경쟁력 면에서는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나 (주) 승진 MR&D의 노력과 사업성과는 향후 국내 민간군사기업 육성 및 발전에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된다.



〈표 3〉 (주) 승진 MR&D의 주요 사업 분야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군사 용역	국 내	• 정책과제/학술연구 • 교범, 교리연구 및 번역사업 •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각종 군사자료 조사 분석 및 연구	
	해 외	• 해외파병군 지원 사업 - 급식자재 납품 - 소요 장비/물자납품 • 주둔지시설 보강공사 • 기능분야 지원(정비/수송 등)	자이툰 부대/ 동의·다산부대
자 원 개 발		• 훈련 교보재 개발 • 주요장비/물자 개발 및 제조 • 무기체계 개선 및 신기술 연구 • 각종 군사전문 컨설팅 제공 • 외국 무기체계 자료조사/정보제공 • 방산장비 수출	
일반 물자 납 품		• 컴퓨터 관련자재 납품/설치 • 일반장비 및 물자 납품 • 민간업체 제품 조립 납품	
건 설		• 국내 건설공사 참여 • 자이툰부대 시설공사 참여 •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G&K 건설
기 타		• 무역/플랜트 수출(민수용 제품)	

출처 : (주)승진 MR&D 홈페이지

제 4 장 민간군사기업의 확산과 평가, 적용방안

제 1 절. 냉전종식 후 민간군사기업의 확산 배경

군사용역의 사영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안보 공백이 생김과 동시에 분쟁이 대규모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과도기적 국제정세 속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력공백의 결과였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은 각자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서 질서와 안정을 제공하며 분쟁 지역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분명 분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많은 이들이 세계평화라는 ‘신세계 질서’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병력감축 및 군비 축소의 바람이 불자 순식간에 지역안보의 공백이 생겨났고, 이 공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민간군사시장을 자극하게 된다. 즉,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더욱 다양하고 위력적이며 위협하게 된 반면, 국지적 불안정과 갈등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은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 서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만다. 특히 두드러진 결과는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냉전종식 이래 내전 발생건수가 두 배로 많아졌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거의 다섯 배로 뛰게 된다. 무력 분쟁 지역의 수 역시 두 배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그동안 강대국에 의해 통제를 받았던 대부분 저개발 및 위성국가들의 국가 통치력 부재에서 기인한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시에라리온, 유럽의 발칸반도가 좋은 예이다.

또 하나, 냉전종식 이후 나타난 병력감축과 국가의 재편⁶⁶⁾으로 인

66) 구소련의 경우 20개의 자치공화국이 연방해체 후 독립하였고, 유고연방의 경우 크로아티아, 몬

해 전직 군인들이 공개 시장에 넘쳐흐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전투 집단과 사기업 모두 유휴민간군사노동력을 싼값에 풍부하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군의 경우 냉전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비해 병사 수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영국군은 병사수로만 보자면 2백 년 전으로 후퇴하였다.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퇴장과 그 인접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군 개혁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⁶⁷⁾

마찬가지로 각국이 군대를 감축한 결과 대량의 군사무기 또한 공개시장에 풀리게 됐다. 특히 옛 소련제 무기는 시장에서 그야말로 헐값에 거래되었다. 러시아가 직접 팔거나 옛 소련 위성국들이 국가 자체가 사라지거나 군대를 축소하거나 혹은 서구 기준에 맞게 무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싼값에 팔아 치운 것이다. 한 예로 옛 동독 육군은 1990년 통일 이후에 말 그대로 경매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⁶⁸⁾ 동독의 옛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통일 독일이 이 무기들을 모두 시장에 내놓았던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은 민간입찰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군사용역의 사영화 배경 속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국제 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냉전종식 후 국제 분쟁의 전투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들은 이러한 새로운 전투양상에 쉽게 대처하기가 점점 곤란하게 되었다. 고강도 분쟁보다는 저강도 분쟁이 증대하고 있고, 소화기 등 각종 무기의 확산으로 진압해야 할 적의 능력이 다양화되고 있다. 저강도 분쟁에서는 대규모 정규 군대보다는 민간군사기업이 보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국가 군대는 무기체계, 편성, 교리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하고 새로운 전쟁양상에 쉽게 대처하기

테네그로,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으로 해체되면서 내전을 거쳤다.

67) 피터 W. 싱어, 전계서, p97

68) 당시 통일독일은 소수의 MIG-29전투기만을 훈련용으로 남기고 옛 동독시절 무기들을 남김없이 처분하였다.

가 상대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민간군사기업들은 국가의 군대들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들 군사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안보·치안분야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정부는 민간군사기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다.

둘째,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많은 국가들은 정부기능을 민간위탁(contracting out) 또는 아웃소싱(Outsourcing) 하였다. 여기에는 교육, 복지 분야 및 교도소의 민영화에서부터 국방 분야의 아웃소싱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냉전종식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규모 감군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6백만 명의 군인들이 전역하였다. 이렇게 전역한 군인들은 군사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군사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군사 기업에 취직함으로써 민간 군사시장의 공급확대를 가져왔다.

셋째, 민간군사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기업(virtual company)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업원을 상비군 형태로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시 채용하는 등 경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즉 민간군사기업은 자본과 인력이 집약적인 기업분야가 아닌 것이다.

넷째, 민간군사기업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다 보니 평화유지군의 구성 및 파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다국적군 구성으로 인한 응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재정적 뒷받침만 된다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할 경우 분쟁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수송, 통신, 훈련, 군수지원 등과 같이 정형화된 군사적 지원 활동은 민간군사기업이 담당하고, 정규군대는 교전행위에 주안을 둘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의 최종적 목표는 분쟁을 종식시킨 후 정통성 있는 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전감시, 무장해제, 선거관리 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과 사회적 통

합을 이루는 과정은 민간군사기업이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평가

민간군사기업과 정규군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비교 시, 조직적인 측면에서 민간군사기업은 임무와 상황에 따른 조직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반면, 정규군은 기존의 조직과 편성을 유지함으로써 융통성이 제한된다.

비용적 면에서 상시 운용되는 정규군의 고비용 구조에 비하여 민간군사기업은 필요시 요구되는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경쟁계약에 의해 운용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전배치 과정에서 민간군사기업은 사 기업체로 계약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반면 정규군은 국민의 여론 수렴과 의회 통과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길고 어렵다. 또한 임무 수행 중 사망자 발생시 민간군사기업은 사 기업체로 정규군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업무의 투명성 면에서 정규군의 경우는 정부의 조직적인 통제 및 확인이 가능한 반면, 민간군사기업은 업체의 자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음의 <표 4>는 민간군사기업과 정규군을 비교한 표이다.

<표 4> 민간군사기업과 정규군의 비교

구 분	민간군사기업	정 규 군
조 직	탄력적인 조직편성 가능	기존 군의 조직과 편성 유지
비 용	저비용	고비용
실전배치 과 정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신속한 결정 가능	국민여론 수렴, 의회절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의 장기화, 어려움
사망자처리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적음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큼
업 무 투명성	정부 통제 어려움 업체의 자율에 기대	정부의 조직적인 통제 및 확인이 가능
기 타	전역군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정부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음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으나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부정적인 면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첫째, 냉전이후 세계 각국의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미군 병력규모는 냉전시대에 가장 많은 때 보다 35%가 줄었으며 영국군 규모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래로 가장 적다. 그러나 걸프전 및 이라크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군사기업의 역할에 있다고 본다. 즉 1991년 걸프전 당시 민간 계약자 대비 현역 미군의 비율이 1:50 이었으나 2003년 이라크전 에서는 1:10 으로 미군 현역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민간계약자들의 수는 증가 하였다.⁶⁹⁾ 따라서 이젠 민간군사기업 없이 전쟁수행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전투력 이외의 군인을 늘리지 않고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다” 며 “아웃소싱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둘째,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사회여론 및 정치적 부담을 감소시킬

69) Peter W. Singer, "Outsourcing War", *Foreign Affairs* 84, no.2 (2005), pp119~132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외 파병 시 여론의 지지, 파병규모, 활동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의회의 동의 등 국내 정치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규 군대의 해외 파병과는 달리 민간군사기업 활용을 할 경우 의회의 관심과 사회 여론을 전환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시 행정부는 콜롬비아 내전에 미군 현역병을 투입하는데 반대하는 미 의회와 여론의 견제를 피하는 묘책으로 민간군사기업 요원을 투입해 왔으며 민간군사기업의 수와 용역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셋째,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전역자는 약 17만 명 정도가 있으며 연평균 3,400명 정도가 매년 사회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 출신의 재취업은 일반사회 직장인에 대비하여 정년이 짧고 일반 공영 및 사기업체 직원들의 개인복지 차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 등으로 표5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취업률은 1998년 42%에서 2002년 27% 수준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출신자 취업률 현황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률	42%	30%	28%	28%	27%

자료 : 매일경제, 2003. 8. 5일자 사회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출현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확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용절감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담당 할 경우와 비교하여 민간의 경영과 점목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 시 비용 절감을 기대 할 수 있고 경직된 군대에서는 기대 할 수 없는 민간 부문의 지식과 인재를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군사적 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군

대와 민간군사기업이 협력하여 군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예상 할 수 있다. 해외 파병 등은 준비 기간과 의회의 비준,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지만 준비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

민간군사기업의 부정적인 면은 첫째, 국가의 주권적 기능은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헌법상의 권리 보호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⁰⁾ 지금까지 교전행위와 같은 군사적 행동은 군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 이었다⁷¹⁾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에게 이러한 군사행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킨다는 것은 군대의 주체성 및 무력행위의 국가 독점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더라도 전쟁수행 등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주요 활동까지 위탁하여서는 곤란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전쟁과 국방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제한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Singer는 작전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임무는 정부의 군대가 담당해야하며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장한다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²⁾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무능한 국가가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거나 특정국가 내 일부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할 경우 국내 일부 계층, 집단들이 안보를 차별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나아가 안보 소외 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이 계약에 의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국제법의 부재다.

70) Ronald C. Moe, "Exploring the Limi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7, no. 6, (November/December 1987), pp456~458

71) Caroline Holmqvist, "Private Security Companies : The Case for Regulation", *SIPRI Policy Paper*, no. 9, (January 2005), p1

72) Peter. W. Singer, op.cit., p6

국가의 군대는 임무수행과정에서 제네바 협약 등 국제 전쟁법과 해당 국가의 군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 코소보 사태 당시(1998~1999) 유엔과의 계약에 의해 경찰 임무를 수행 하였던 DynCorp사의 종사자들이 강간 및 아동 매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자들은 국외 추방 조치 이외의 다른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 또한 Executive Outcomes사는 시에라리온 내전(1998~1999)과 앙골라 내전(1998~2002)에서 비인도적인 무기로 알려진 공기연료 폭탄을 사용하는 등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⁷³⁾

민간군사기업 요원은 무기를 지니고 다니며 포로를 심문하고, 폭탄을 싣고 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그들의 신분은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적으로 말하면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갇힌 알 카에다 포로처럼 법률적 회색지대(Grey Area)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어디에 주둔하든 엄격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는 달리 민간군사기업 요원은 국제법상으로도 애매한 존재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범죄에 대한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해진 나라에서 이뤄진다. 그렇지만 민간군사기업은 흔히 “실패한 국가”에서 활동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법제도가 실통치 못한 나라에서 재판하도록 내버려두기도 어렵다. 이라크의 경우도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다. 법적으로 미군 점령 하에 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은 이라크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민간군사기업 요원이 지난 2년 동안 이라크에 머물면서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그런 사정 때문이다. 미군은 수십 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과 대비된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은 민간 기업으로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이며 책임의식의 저하에 대한 문제다. 미 부통령 딕 체니가 회장으로 몸담았던 헬리버튼은 이라크전 용역과 관련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거듭 받고 있다. 비판자들은 가솔린 가격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지도 않은 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 타낸 금액이 18억 달러 이른다고 주장

73) 피터 W. 싱어, 전게서, p33

한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여러 민간군사기업 가운데 앞서가는 군 용역업체로 2004년 8월 월 스트리트의 1면 머리 기사를 장식한 카스터 배틀즈(Custer Battles)도 허위 서류로 연방정부 예산을 축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윤추구만을 노리고 국제테러집단 등에 고용되어 국제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민간군사기업을 제대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적 임무를 맡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간기업 이다. 따라서 군 명령체계와 사법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군부대와 달리 민간군사기업은 이윤이 적거나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면 맡겨진 임무를 포기 할 수도 있다 병사들과 달리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은 주어진 임무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사표를 던지고 언제라도 전선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미 이라크 주둔 미군과 연합군에 크고 작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민영화가 작은 정부와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다. 정부는 그들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 위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비 절감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 홍보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군대의 해외 파병에 따른 의회의 승인과 감시,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간군사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민영화는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독점의 경우보다 경제적인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경쟁이 없는 민영화는 정부 예산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독점적 지위의 정부가 하던 기능과 역할을 민간부문의 독점기업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민영화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독점적 공급자였던 정부가 독점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지위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⁷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 시 경쟁원리에 의한 기업선정이 바람직하나 계약내용의 비밀유지 및 경쟁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경쟁원리 도입이

74) Ted Kolderi, "The Two Different Concep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uly/August 1986), p267

불가능한 경우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제 3 절. 민간군사기업의 적용방안

1. 민간군사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탈냉전 후 유동적인 안보환경에서 민간군사기업은 과거 용병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매력적인 성장산업으로 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도 PMC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만이 분쟁에서 주된 행위자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군사기업의 역할과 능력,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PMC를 활용 시 신속한 위기대응과 전투력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둘째,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군은 장차 남북한 군비통제 조치의 실현 여부를 떠나 현재의 인력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군대의 모습이 바뀌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력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방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핵심 기능만 제외하고 상당 부분은 민간 영역의 외주에 의존하는 국방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방환경에서 민간군사기업을 사전에 육성해 두지 않는다면, 부득이 많은 비용과 주권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외국의 군사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부분적인 대외 의존은 군사혁신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규모 대외 의존은 국가기밀의 노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 또는 예비역 군인들도 세계 군사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세계평화유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또한 국제분쟁에 따른 민간

군사기업의 소요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였거나 한미연합작전의 경험이 있는 우수한 예비역 군인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기복무 예비역들의 사회 취업기회가 미미한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출현은 취업의 돌파구 역할도 가능하다고 한다.

넷째,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국가 위상의 제고다. 해외파병이 곤란한 제3국에서의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전략적 전술적인 군사자문, 평화 지원 활동, 각종 군수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외교역량의 강화는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담당할 분야는 군사자문 및 군사지원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 하면서 군사력 제공 분야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2. 민간군사기업에 적용 가능한 업무영역

민간군사기업의 적용 가능한 업무영역은 군사력제공, 군사자문, 군사지원 분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민간군사기업에 적용 가능한 업무영역

구 분	업무영역	세부 분야	비 고
군사력 제 공	전투병력 운영 / 작전지원	○직접전투, 교전참여, 주둔지경계 ○심리전, 선전술	개도국 등 불안정한 국가, 조직이 주요 대상
	첩보 및 정보전	○정보수집 / 처리 ○비밀작전	
	첨단기술정보	○첨단장비운영 / 유지	
군 사 자 문	작전지도	○작전계획 수립 ○군 조직 / 편성 ○위험관리 자문	군 아웃소싱과 연계, 평시에 도 확대 적용
	교육훈련	○훈련통제 및 평가(BCPT, KCTC 등) ○지역 군대 훈련(ROTC 교육 등)	
	정책과제 / 교리	○군의 VISION제시 ○제대별 / 기술 교범 작성 ○해외자료 번역	
	보안업무	○지역보안, 작업장/건물보안 ○컴퓨터 보안	
군 사 지 원	군수지원	○보급 / 정비 / 수송 ○주둔지근무지원(급식, 세탁)	
	기 타	○지뢰제거 ○교도소 관리	

국내에서 민간군사기업을 우선 활용 가능한 사업영역은 교육훈련 분야로 BCPT, KCTC 등 훈련통제를 과감히 민간군사기업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별 비효율적인 학군단 운영을 지역별로 권역화 하여 민간군사기업에 위탁하여 교육한다면 보다 질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제 및 교리 분야는 연구 산물의 질 향상을 위해 개별 연구용역보다는 민간군사기업 단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군수지원 분야는 해외 파병 시 사회여론 및 정치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컴퓨터 보안은 급격한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해야하는 측면을 고려시 민간업체의 최신기술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앞으로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국방현안 중 하나인 전방지역 및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뢰제거 또한 고려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전방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민간 인력이 희생되었으며 이러한 비 기술적인 사업에 귀중한 정규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교도소 관리는 민간군사기업의 장기복무 전역군인 및 전문 인력이 담당 시 체계적인 관리와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민간군사기업 육성을 위해 발전시킬 사항

첫째, 민간군사기업 운용방안은 영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과 독일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부터 국방개혁과 국방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군사기업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영국은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거의 완전한 시장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계약을 통한 규제를 추진한 반면, 독일은 주식소유, 민군 합작 투자 등의 방법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방식을 채택해 왔다.⁷⁵⁾ 영국과 독일의 민간군사기업 활용 모델 간 장단점은 있으나 정부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하여 민간군사기업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만들고 민간군사기업은 완전히 시정 경제에 맡기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군인공제회나 재향군인회에서 민간군사기업을 운용한다면 군과의 연계성, 장기복무 전역자들의 활용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방위산업체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민간군사기업을 운용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민간군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의 마련이다. 현재 개념 정립마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75) Elke Krahmann, "Controlling Private Military Services in the UK and Germany : Between Partnership and Regulation", *European Security*, Vol. 13, no. 2 (Forthcoming, 2005), p178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방산 산업을 위한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민간군사기업을 위한 분야를 포함시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정부 기금지원이나 군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권부여, 세제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의 난립을 막고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허가제 또는 등록제로 하고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효율적인 민간군사기업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국방부 또는 방사청에 사업관리 및 운용을 통제 및 지원 할 수 있는 부서를 운용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지원, 제도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냉전 종식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군의 효율화 및 정예화를 위해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민간분야를 적극적으로 군 운영에 활용하는 군의 아웃소싱과 연계하여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이라크전에 민간군사기업 요원이 2만 명이상 활동할 정도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은 분쟁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해외 파병 시 민간군사기업의 참여는 필수 요소가 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민간군사기업은 냉전 종식 후 분쟁지역 및 전쟁양상의 다양

화, 정부 기능의 민영화 추세,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해외 파병 시 정치적 부담 감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증가 등과 맞물려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이 장미 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적 행동과 같은 국가의 주권적 기능은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칫 사적 폭력의 세계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국제법 및 규범의 부재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과 민간군사기업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으로 근본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점과 위험시 책임의식의 문제, 작은 정부를 위한 아웃소싱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사회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국가들이 민간군사기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최근 세계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시 효율적인 임무수행 측면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우리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장기복무 전역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은 민간군사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군사기업은 방위산업체와 같이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 하에 육성하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적용 가능한 업무 영역은 군사력 제공, 군사자문, 군사지원분야가 가능하나 군사력 제공 분야는 현 시점에서는 제한되며 군사자문 및 군사지원 분야 위주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훈련 분야의 KCTC / BCTP훈련 통제 및 평가, ROTC 교육과 정책과제 및 교리분야의 군의 VISION제시, 제대별 / 기술 교범작성, 해

외자료 번역과 해외 파병 시 군수지원 분야의 보급 / 정비 / 수송, 주둔지근무지원(급식, 세탁)과 전방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뢰제거와 교도소관리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민간 군사기업과 연계 시에는 다양한 업무의 확대가 가능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간군사기업은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나 우리의 우수한 장기복무 전역 인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취업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민간군사기업 활동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자료

가. 서 적

- 나종삼,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국방군사연구소, 1996
- 마이클 매클리어(유경찬 역), 『베트남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 이대영, 『알기 쉬운 2차 대전사』, 호비스트, 1998
- 이용현, 『소련의 아프간전쟁』,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 임영훈, 『외인부대(현존하는 전설의 용병부대)』, 들녘, 2002
- 캔 실버스타인(정인환 역), 『전쟁을 팝니다(Private Warriors)』, 이후, 2007
- 콜린 프린트(한국지정학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2007
- 피터 W. 싱어(유강은 역), 『전쟁대행주식회사(Corporate Warriors)』, 지식의 풍경, 2005
- 하름 데블레이(유나영 역), 『분노의 지리학(Why geography matters)』, 천지인, 2007

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

- 김광우,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2005
- 김두현,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06
- 문광진,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주간국방논단, 2002
- 우제웅/이혁수,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전망, 주간국방논단, 2007
- 이상진,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관리 혁신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보기술과 국방관리, 2001
이수형/전재성,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북아안보체제, 국방연구
제48호, 2005
전 응, 21세기와 한국의 안보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위협들,
국방연구 제48호, 2005

다. 학위논문

김수정, 민간군사용역회사의 이중적 특성, 서울대학교대학원, 2006
박한민, 미국 민간군사기업의 대두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2007
이성근,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대학교 사회체육 대학원, 2005

2. 해외자료

Brown, Justin, "The Rise of the Private-Sector Military",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5, 2000
Holmqvist, Caroline, "Private Security Companies : The Case for Regulation",
SIPRI Policy Paper, no. 9, January 2005
Kolderi, Ted, "The Two Different Concep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uly/August 1986
Krahmann, Elke, "Controlling Private Military Services in the UK and Germany : Between Partnership and Regulation", *European Security*, Vol. 13, no. 2 Forthcoming, 2005
Moe, Ronald C., "Exploring the Limi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7, no. 6, November/December 1987
Singer, P. W., "Outsourcing War", *Foreign Affairs* 84, no.2 2005

Wynn, Donald T., "Managing the Logistics-Support Contract in the Balkans Theater", *Engineer*, July 2000

3.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lackwaterusa.com>

<http://www.cubic.com>

<http://www.dyncorp.com>

http://www.halliburton.com/BRS/bress/bress_1199_balkansd.asp

<http://mpri.com>

<http://oasis.northgrum.com>

<http://www.saic.com>

HANSUNG
UNIVERSITY

ABSTRACT

Development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roug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Shin, Dong-Hyung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fter the end of Cold War,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have increasingly started reducing military forces and outsourcing to the private sector by utilizing private military companies

In the Iraqi war over 20,000 agents from private military companies were in action which indicated that activities of these companies have becom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settl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when sending troops overseas.

The diversification of conflict regions, trend of privatiz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apid and efficient crisis management, decrease in political pressure when sending troops overseas and the increase in discharge of officers that have served long time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after the Cold war.

But private military company's future is not only bright.

Sovereign functions of the country like military actions cannot be a part of privatization which can lead to private violence in a global scale. Also, negative elements such as difficulty in regulation due to absence of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 the fact that private military companies are private companies with a basic goal of making a profit, problem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danger and whether outsourcing for small governments can actually lead to a reduction in budget and bring an economic effect. Also these firms could also be used in the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s without the regulation of the Congress and avoid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Nevertheless, the fact that countries like the US and the UK tha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making efficient us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idely, suggest that we should develop this in a more positive aspect.

Especially, with recent increase in participation of Peace Keeping Operations, active us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can bring much synergy effect in executing operations.

Furthermore the availability of discharged officers with abilities of combined and allied operations that served long-time in the military may become the base in developing a private military company.

If we promote private military companies under government's legal, institutional support along with clear qualification criteria such as the defense industry companies and establish a management branch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r the Defense industry agency to manage and control them, problems could be prevented beforehand and systematic development would be possible.

Operational fields that private military companies can work in are military power providing, military consulting and military

support but military power providing is currently limited and selection of military consulting and support fields are desirable. Especially fields such as KCTC/ BCTP exercise control and evaluation, ROTC training and policy tasks and presenting VISION of military doctrine, writing out echelon / technical manual, foreign material translation and supply/maintenance/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ort part in case of dispatching forces overseas, encampment service support(meals, laundry) and mine clearing for efficient use of frontline area and DMZ can be considered.

By cooperating with other foreign military companies it would be possible to expand and be able to operate a variety of tasks. As stated above, private military companies, connected with national defense reform,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building small but strong military and especially, it will be a breakthrough for employment in aspect that we are efficiently using our talented discharging long-term personnels.

Henc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in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 further.